인문연구 제88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8, No. 1, pp.169~198
http://dx.doi.org/10.21211/JHUM.88.6

노(能)에 나타난 母性-悲嘆, 狂氣, 救援*

김난주**

〈차 례〉

1. 들어가며
2. 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유형
3. 비탄에 빠진 어머니들
4. 길 위의 어머니-狂氣, 遊樂, 접신하는 모성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중세극 노(能)에 나타난 모성의 전체적 양상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노가 그리고 있는 어머니상(像)의 특징 및 모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것이다.

모성을 소재로 한 모든 노는 예외 없이 자식과의 이별을 상정하고 이별의 슬픔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그린다. 노가 그리고 있는 어머니상의 핵심은 바로 슬퍼하는 어머니에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부모에 의한 아동유기와 인신매매가 횡행하던 시대상

* 본 논문은 201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연구전담 조교수.

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모성 판타지를 표상한다. 한편, 어린 자식이 유괴나 인신매매, 돌연 출가 등으로 실종된 경우, 노의 어머니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자식을 찾아 헤매고 모자재회라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 모자재회를 다룬 이들 모노구루이노(物狂能)에 대해서는 흥미를 주안으로 하는 모노구루이 퍼포먼스가 극적인 긴장감을 사장시킨다는 평가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재고하여 모노구루이 장면이 구조적으로는 모자재회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노구루이 춤을 추는 여인들의 의식 속에 자식을 찾겠다는 일념이 일관되게 내재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애집을 고통과 허망으로 인식하는 노가 유독 모성에 대해서만은 긍정과 구원의 판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노(能), 요쿄쿠(謡曲), 모성(母性), 모노구루이(物狂), 가시와자키(柏崎), 사쿠라가와(桜川), 스미다가와(隅田川), 접대(摂待), 대불공양(大仏供養), 햐쿠만(百万), 후지토(藤戸), 미이데라(三井寺)

1. 들어가며

모성(母性)은 모든 피창조물에 있어 본원적인 것인가? 이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혹은 강하게 반발한다. 저명한 인류학자 섀리 엘 서러의 경우, 모성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덧없고 불명확한 판타지이며 모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절망적으로 역사와 시대, 문화와 유행에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1] 많은 여성주의 연구가 지적해 온 것처럼 길고 긴 가부장의 역사 속에서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가치를 출산과 양육으로 재단하고 억압해 온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사실 모든 어머니가 자식에게 헌신적이지도 않고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귀하게 대접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 마지막 피난처로서의 어머니, 모성에 대한 판타지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인류 문예사에서 모성은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테마였다.

일본의 중세 고전극 노(能)에도 모성을 다룬 일군의 작품이 존재한다. 현재 연행되는 노 중에서 모자관계를 주요 소재로 다루거나 어머니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해녀(海士)」, 「가시와자키(柏崎)」, 「사쿠라가와(桜川)」, 「스미다가와(隅田川)」, 「접대(摂待)」, 「대불공양(大仏供養)」, 「후지토(藤戸)」, 「햐쿠만(百万)」, 「미이데라(三井寺)」, 「유야(熊野)」 등을 꼽을 수 있다.

모성을 다룬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을 통하여 중·근세의 여성사 및 사회사를 파악하려는 역사학적 접근[2], 개별 작품의 취향 및 주제 연구[3], 창작 경위와 전거(典據)[4], 예능사적 기원[5] 및 불교와의 관계 등을 규명한[6]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

1) 섀리 엘 서러 지음・박미경 옮김, 『어머니의 신화』, 까치, 1996, p. 25.

2) 脇田晴子, 「時代を映しだす物狂能ー異性・子売り・母性」, 『能楽からみた中世』, 東京大学出版会, 2013, pp. 129-163 ; 「母性尊重思想と罪業観」, 『日本中世女性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92, pp. 129-156.

3) 野上豊一郎, 『能　研究と発見』, 岩波書店, 1930, pp. 94-108 ; 香西精, 「作品研究 桜川」, 『観世』 32-30, 1965 등.

4) 田口和夫, 「身売り説話と能-〈自然居士〉〈桜川〉の場合」, 『国文学解釈と鑑賞』59-11, 至文堂, 1994, pp. 146-152 ; 大谷節子, 「孝養と恩愛ー物狂能遡源」, 『世阿弥の宇宙』, 岩波書店, 2007, pp. 219-238 등.

5) 柳田国男, 「子を尋ぬる物狂ひ」, 「烏帽子の力」, 「曲舞と親子」, 『女性と民間伝承』, 岡書院, 1932(『定本柳田国男集』, 筑摩書房, 1979, pp. 315-447 所收) 등.

6) 中村格, 「能と信仰ー子を尋ぬる物狂いの能」, 『室町能楽論考』, わんや書店, 1994, pp. 104-151 등.

이들 연구가 주로 이른바 〈모노구루이 노(物狂能)〉[7]에 편중되어 있거나 개별 작품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노에 나타난 다양한 모성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모성을 다룬 노에는 자식과 이별한 어머니가 모노구루이(광인)가 되어 자식을 찾아 헤매다 재회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작품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작품을 상기할 때, 아무래도 노에 나타난 모성의 전체상과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작품들을 망라해 함께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모자관계 및 모성을 다룬 상기 작품들에 대하여 어머니상의 양상과 이미지를 분석하고 노가 그리고 있는 모성의 특징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또한 모성을 다룬 〈모노구루이 노〉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재고하여 노가 그리고 있는 모성이 노의 미학적 특성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유형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연행되고 있는 노 작품 중에서 모성을 다루고 있는 곡을 선별해 보면 「해녀」, 「가시와자키」, 「사쿠라가와」, 「스미다가와」, 「접대」, 「대불공양」, 「후지토」, 「햐쿠만」, 「미이데라」, 「유야」 등 대략 10곡 정도가 추려진다.

---

7) 모노구루이(物狂)란 광기에 빠져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제아미(世阿弥)는 『후시카덴(風刺花伝)』 「모노마네조(物まね条々)」에서 모노구루이는 귀신이나 신불의 빙의, 육친이나 정인(情人)과의 이별로 생겨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의 모노구루이는 보통의 광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 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이들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유형을 표로 정리한 후, 그 특징을 개괄해 보기로 한다. 작품 배열은 가급적 제작 순으로 배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명확한 점이 많다.

①「해녀(海女)」: 제아미(世阿弥) 이전 작

후사자키(藤原房前)가 망모(亡母)의 추선공양을 위해 시도우라(志度浦)를 찾는다. 한 해녀가 나타나 그 옛날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가 가문의 보주(寶珠)를 찾으러 시도우라에 왔다가 해녀와 인연을 맺고 후사자키를 낳은 사연을 들려준다. 해녀는 그 옛날 자신의 아들을 후지와라 집안의 후계자로 삼는 조건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보주를 찾아준 사연을 재현한 후 사라진다. 후사자키, 망모를 위해 추선공양을 바친다. 해녀의 혼령이 나타나 추선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했음을 알린다. 후사자키, 시도데라(志度寺) 절을 세우고 매년 법화팔강(法華八講)을 연다.

②「햐쿠만(百万)」: 강아미(観阿弥)[8] 원작. 제아미 개작

야마토(大和)의 승려가 사이다이지(西大寺) 부근에서 만난 소년을 데리고 사가(嵯峨) 세이료지(清涼寺)의 대염불회(大念佛會)를 보러 간다. 벚꽃이 만개한 염불회장, 구세마이(曲舞)의 무녀 햐쿠만(百万)이 세이료지 석가상의 유래와 행방불명된 아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춤을 춘다. 소년 어머니를 알아보고 모자 재회한다.

③「미이데라(三井寺)」: 제아미 개작

한 여인이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기 위해 교토 기요미즈데라(清水寺)의 관음보살을 참배한다. 꿈에 계시를 받고 오미(近江)의 미이데라(三井寺) 절로 향한다. 미이데라의 주지가 동자승과 함

8) 1333-1384년. 제아미의 아버지.

께 중추(中秋)의 달맞이 놀이를 하러 나온다. 여인이 미이데라 종소리에 이끌려 등장한 후 한시(漢詩)를 인용하며 종의 고사(故事)를 읊고 달빛 아래 춤을 춘다. 소년, 어머니를 알아보고 재회한다.

④「가시와자키(柏崎)」: 에나미 사에몬고로(榎並左衛門五郎)[9] 원작, 제아미 개작

하인이 가시와자키(柏崎)의 안주인에게 주인어른이 병으로 죽고 외아들 하나와카(花若)가 부친의 극락왕생을 위해 출가한 소식을 전한다. 실성한 채 아들을 찾아 떠돌던 여인은 여인금제(女人禁制)의 젠코지(善光寺) 절 안으로 들어가 생전의 남편을 추억하며 극락왕생을 빈다. 젠코지의 동자승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재회한다.

⑤「사쿠라가와(桜川)」: 제아미 작

인신매매상이 자신에게 몸을 판 소년 사쿠라고(桜子)의 편지와 몸값을 소년의 어머니에게 전한다. 아들의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실성해 아들을 찾아 나선다. 이소베데라(磯部寺) 절의 주지가 사쿠라고를 데리고 사쿠라가와(桜川) 강으로 꽃놀이를 나간다. 여인은 자신이 사쿠라가와 강까지 흘러온 사연을 들려준 후, 강물에 흘러가는 꽃잎을 건져 올리며 시정 넘치는 춤과 노래를 선보인다. 사쿠라고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재회한다.

⑥「후지토(藤戸)」: 제아미 작?

모리쓰나(盛綱)가 히젠 국(肥前国)의 후지토(藤戸) 지역을 선점한 공으로 그 곳 영주로 부임한다. 아들을 잃은 어부의 노모가 모리쓰나 앞에 나가 소송한다. 전공(戰功)을 차지하기 위해 어부를 살해한 모리쓰나가 노모 앞에 참회하며 어부의 명복을 빈다. 어부의 망령이 나타나 성불했음을 알리고 사라진다.

---

9)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전기의 노 연기자. 생몰연대 미상.

⑦「스미다가와(隅田川)」: 간제 모토마사(観世元雅)[10] 작

무사시노(武蔵野) 국경 나루터에 실성한 여인이 나타난다. 여인은 뱃사공에게 유괴당한 아들을 찾아온 사연을 말한다. 뱃사공이 1년 전 인신매매상에게 버려진 채 죽어간 소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대염불회를 열게 된 사연을 들려준다. 여인은 죽은 아들의 무덤을 찾아간다. 어머니와 군중의 염불소리에 이끌려 무덤 속에서 소년의 영혼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⑧「접대(攝待)」: 미야마스(宮増)[11] 작?

요시쓰네(義経)와 벤케(弁慶) 일행이 요리토모(頼朝)의 추격을 피해 오슈(奥州)로 내려가던 중 이와시로 국(岩代国)의 사토(佐藤) 저택을 지난다. 요시쓰네를 위해 싸우다 죽은 쓰구노부(継信)와 다다노부(忠信)의 모친이 손자 쓰루와카(鶴若)를 데리고 일행을 맞이한다. 모친, 요시쓰네에게 죽은 아들들의 최후를 청해 듣는다. 일행은 떠나고 모친과 쓰루와카만 쓸쓸히 남는다.

⑨「유야(熊野)」: 곤파루 젠치쿠(金春禅竹)[12] 작?

다이라노 무네모리(平宗盛)의 애첩 유야는 병든 노모의 문안을 위해 귀향을 청하지만 무네모리는 허락하지 않는다. 고향집 시녀가 노모의 편지를 유야에게 전한다. 무네모리는 기요미즈데라(清水寺)의 벚꽃놀이에 유야를 동반시킨다. 연회에서 춤을 추던 유야가 지는 꽃을 보며 병든 노모를 그리는 시를 읊는다. 이에 감동한 무네모리가 허락하고 유야는 귀향길에 오른다.

⑩「대불공양(大仏供養)」: 작자미상

가게키요(景清)는 적장 요리토모(頼朝)가 나라(奈良)의 대불공양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나라로 향한다. 도중에 어머니에게 들러 거사 계획을 말한다. 어머니는 죽음의 길로 떠나는 아들을 눈

10) ?~1432. 제아미의 장남.

11) 무로마치 초기의 노 연기자 겸 대본 작가. 활동시기 1429-1441년?

12) 1405~1470년? 제아미의 사위.

물로 만류한다. 성대한 대불공양회, 가게키요는 요리토모의 무장들과 결투하지만 암살에 실패한 채 피신한다.

이상의 작품 내용을 토대로 각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상의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작품별 어머니상

작품명	이별원인	어머니상	신분	결 말
해녀	어머니 죽음	희생하는 어머니	해녀	모친성불
햐쿠만	아들의 실종	슬퍼하는 어머니 유랑하는 여인 모노구루이(物狂)	무녀 (舞女)	모자재회
미이데라	아들의 실종	슬퍼하는 어머니 유랑하는 여인 모노구루이	중상류층	모자재회
사쿠라가와	몸을 판 아들	슬퍼하는 어머니 유랑하는 여인 모노구루이	하류층	모자재회
가시와자키	아들의 출가	슬퍼하는 어머니 유랑하는 여인 모노구루이	상류층	모자재회
후지토	아들의 죽음	슬퍼하는 어머니 소송하는 어머니	어부의 모친	아들성불
스미다가와	아들의 유괴	슬퍼하는 어머니 유랑하는 여인 모노구루이	중하층?	아들죽음
접대	아들의 전사	슬퍼하는 어머니	상류층	아들죽음
유야[13]	애첩이 된 딸	슬퍼하는 어머니 늙고 병든 어머니	중상류층	모녀상봉
대불공양	아들의 참전	슬퍼하는 어머니	상류층	모자이별

13) 〈유야〉는 병든 노모를 그리는 딸의 이야기로 작품 안에서 어머니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모성에 대한 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

이상 작품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을 다룬 모든 작품은 자식과 어머니의 이별을 설정한다.

둘째, 이별의 원인은 어머니가 죽는 「해녀」를 제외하면 자식의 실종이나 죽음에 있다. 위의 표를 보면 노의 자식들은 유괴, 인신매매, 전쟁, 출가와 같은 이유로 어미의 품을 떠나고 더러 목숨을 잃는다.

셋째, 노의 어머니상은 ①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행하는 어머니와 ②자식과 이별하고 슬퍼하는 어머니로 대별되는데, 「해녀」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②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가 그리는 어머니상의 대표적 이미지는 '슬퍼하는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넷째, 모성을 다룬 노 중에 「해녀」를 제외한 모든 작품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으며[14], 「유야」를 제외하면 모두 모자관계로 설정된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는 잦은 전란에 의한 남성들의 사망, 일부다처 결혼 방식에 의한 편모가정의 양산, 극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노의 연행 특성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설화를 비롯한 다른 문예에서 모녀관계가 자주 등장하는데[15] 비해 노가 유독 모자관계에 치중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된다. 하지만 딸에게 보낸 편지 속에 딸을 그리는 애틋한 모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 고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14) 이와 관련해서 와키타 하루코도 모자 이별을 다룬 노에는 모자가족 설정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脇田晴子, 『能楽からみた中世』, 앞의 책, p. 147.

15) 일례로 중세 설화집 『사석집(沙石集)』 4-8에는 병든 아버지를 봉양한 딸의 이야기를 다루며 "사람의 자식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효양의 마음도 더 깊고 부양도 곡진하다"고 했다. 無住道暁 著・小島孝之 校注・訳, 『沙石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2), 2008, 小学館, p. 206.

다섯째, 모성을 다룬 노의 과반은 자식과 이별한 어머니가 광인이 된 채 자식을 찾아 유랑하는 내용이다. 위 표를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중에서도 특히 어린 자식이 행방불명된 경우, 그녀들은 예외 없이 길을 떠나고 고난의 유랑 끝에 모자상봉을 이루어 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노에 나타난 어머니상의 큰 줄기는 1)자식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어머니 2)자식을 찾아 유랑하는 어머니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하, 자식을 잃은 애끓는 모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자식을 찾아 나선 어머니의 여정을 따라가며 노에 나타난 모성의 구체적 양상 및 모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비탄에 빠진 어머니들

모성을 다룬 노에서 「해녀」를 뺀 모든 곡의 어머니는 어떠한 연유로든 자식과 헤어지고 그 이별의 슬픔에 몸부림친다.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엄격하게 훈육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어머니, 그리고 설화나 민담에 곧잘 등장하는 자식을 잡아먹는 무서운 어머니 등등 문학과 예술이 그리는 어머니상은 현실의 그것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어머니상 중에서도 노는 단연코 어머니를 슬픈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장의 표에서 보듯 신분의 고하, 경제적인 처지,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노의 자식들은 실종, 인신매매, 전쟁, 출가와 같은 이유로 어미의 품을 떠나고 더러 목숨을 잃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신매매이다. 현행 작품 중, 「햐쿠 만」, 「미이데라」, 「사쿠라가와」, 「스미다가와」의 어린 아들

은 모두 인신매매상에게 유괴되거나 팔려간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16]가 지적하듯 중세시대 성행한 아동 인신매매 풍습이 반영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제아미 작으로 알려진 「사쿠라가와」에서 소년 사쿠라고(桜子)는 "오랜 세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17]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몸을 판다. 중세 사학자 와키타 하루코는 '여성의 직업이 적었던 중세 사회상을 생각할 때, 사쿠라고의 어머니는 몸을 팔아 생계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쿠라고가 이소베데라 주지의 동자승이 된 것도 주지의 성적 대상으로 팔려갔기 때문일 것'[18]이라고 추정한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파는 어미, 그 어미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팔아 남색(男色)의 대상이 되는 어린 자식. 모자이별을 다룬 노 중에서도 「사쿠라가와」의 모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비참한 경우에 속해 있었다. 자식이 남긴 편지와 돈을 받아든 사쿠라고의 어머니는 절규한다. "이 아이는 돈을 받고 팔 아이가 아니오. 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이시여 당신의 자식인 이 아이를 말려주소서."[19]

「사쿠라가와」가 가난한 어머니를 위해 스스로 몸을 판 아들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라면, 「가시와자키」에는 죽은 아버지의 추선공양을 위해 돌연 출가한 아들이 등장한다. 다음은 아들의 출가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가 탄식하는 장면이다.

---

16) 田口和夫, 1994, 앞의 논문, pp. 146-152 ; 脇田晴子, 『中世を生きる女たち』, 岩波新書, 2005, pp. 230-234 등.

17) 佐成謙太郎, 「桜川」, 『謡曲大観』2巻, 明治書院, 1930, p. 1226. 이하 노의 본문 인용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謡曲大観』에 의거한다.

18) 脇田晴子, 『能楽からみた中世』, 앞의 책, pp. 153-154.

19) 「桜川」, 『謡曲大観』2巻, p. 1226.

> 죽은 아비가 세상에 남긴 것 중에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보냐? 아비 떠난 게 슬프다고, 아비 떠난 게 슬프다고 수행 길에 오르면서 살아있는 어미를 보고픈 마음은 없구나. 야속한 내 아들아. 괴로울 땐 밉다가도 우리 아들 가는 길 무사안온 지켜 주시길, 신불에게 비는 마음 애달퍼라.[20]

영지 소송을 위해 가마쿠라(鎌倉)에 체류하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뿐인 아들의 출가 소식은 여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 대한 원망이 솟구치지만 이내 원망과 슬픔을 억누르고 아들의 무사안온을 위해 기도하는 모성을 그리고 있다.

모자이별을 그린 작품 중에서도 위의 두 곡은 자식의 효행이 이별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사쿠라가와」에서는 가난한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인신매매상에게 스스로 몸을 판 효자가, 「가시와자키」에서는 죽은 아비의 추선공양을 위해 출가를 감행하는 효행이 소재가 되었다. 오타니 세쓰코(大谷節子)는 이러한 '인신 매매형'과 '출가형' 모노구루이 노(物狂能)의 연원이 불교의 창도화형(唱導話型)에 있다고 지적한다.[21]

---

20) 亡からん父が名残には子程の形見あるべきか。父が別れはいかなれば。父が別れはいかなれば。悲しみ修業に出づる身の。などや生きてある。母に姿を見えんと。思ふ心のなかるらん。恨めしのわが子や。憂き時は。恨みながらもさりとては。わが子の行方安穏に守らせ給へ。神仏と祈る心ぞあはれなる。(「柏崎」, 『謡曲大観』1巻, p. 655).

21) 大谷節子, 2007, 앞의 책, pp. 219-238. 부모 봉양을 위해 몸을 판 효자의 이야기를 다룬 창도설화가 모자이별을 소재로 한 노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이토 마사요시(伊藤正義)는 新潮日本古典文学集成 『謡曲集』(中)의 작품 해제(2015년 판, pp. 442-443)에서 노 「사쿠라가와」와 『私聚百因縁集』巻2에 실린 「堅陀羅国貧女事」의 유사성을 지적했고, 다구치 가즈오(田口和夫)는 「自然居士」, 「桜川」 같은 인신매매형 노와 『沙石集』, 『私聚百因縁集』, 『百座因縁』 등에 실려 있는 부모 공양을 위해 몸을 판 효자설화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바 있다(田口和夫, 1994, 앞의 논문).

그런데 불교의 인연담 내지 창도설화의 목적은 '세속의 효를 버리고 불도 입문의 효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효도임을 설파하는'[22] 데 있다. 또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효자이다. 이에 반해 노는 그런 자식을 둔 어머니를 이야기한다. 노에는 헤어진 자식이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재회한다는 내용의 곡이 없다. 모자이별의 노에서 혈육을 찾아 헤매는 것은 언제나 어머니이다[23]. 즉, 노의 시선은 행방불명된 자식이 아니라 오직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따라 가는 것이다.

한편, 자식과 헤어진 어머니 중에는 끝내 자식의 죽음과 맞닥뜨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지토」, 「접대」, 「스미다가와」가 그에 해당한다. 이 중 「스미다가와」의 어머니는 인신매매상에게 끌려가다 병들어 죽은 어린 자식의 무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 태어난 곳 멀리 떠나 동국(東國)의 끝, 길가 흙이 되어 봄풀만 무성한 땅 밑에 있는 것이냐? 사람들아 이 흙을 파 뒤집어 한번만이라도 이 세상 있었을 적 모습을 어미에게 보여주시오.[24]

또한 「후지토」에서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어부의 노모가 등장한다. 노모의 아들은 장수 모리쓰나(盛綱)에게 요새의 지름길을 알려주었으나 그 길이 적에게도 누설될까 두려워한 모리쓰나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노모는 아들을 죽이고 영주로 영전한 모리쓰나 앞에

---

22) 大谷節子, 같은 책, p. 232.

23) 이에 반해 부자이별을 다룬 노의 경우에는 종종 「쓰치구루마(土車)」나 「우타우라(歌占)」처럼 아들이 집 떠난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사례가 보인다.

24) 生所を去つて東のはての。道の辺の土となりて。春の草のみ生ひ茂りたる。この下にこそあるらめや。さりとては人々この土を返して今一度。この世の姿を母に見せさせ給へや。(「隅田川」, 『謡曲大観』3巻, pp. 1530-1531).

엎드려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 덧없는 세상 이치를 목도하였네. 사람의 죽음은 노소(老少)에 달려 있지 않으니. 젊은 것을 앞세우고 쓸쓸이 남은 늙은 이 몸, 그저 잠을 자듯 살고 있다오. 생각하면 꿈같은, 스무 해를 키우며 잠시만 헤어져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맘이었거늘. 이제 어느 세상에서 다시 만날까 …… 죽은 아들과 같이 가게 해 주시오. 사람들이 보는 눈도 나 몰라라 엎드려 우니.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미쳐 우는 모습 불쌍하구나.[25]

영주 앞에 나와 아들의 죽음을 규명해 달라고 탄원하는 노모는 이미 아들을 죽인 범인이 영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늙은 어미는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입에서 진실과 사죄의 말을 듣고자 나온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해 일찍이 사나리 겐타로(佐成謙太郎)는 승자뿐 아니라 "이름 없이 희생된 어부와 자식을 잃은 노모의 아픔에도 눈을 돌려 위무할 줄 아는 작자의 고결한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26] 고 상찬한 바 있다. 생각해 보면 노의 주인공들은 신, 이계(異界)의 귀신, 무사, 성직자, 상류 여성, 유녀 같은 고귀하거나 아름답거나 힘을 가진 존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난하고 비참한 하층 민중의 아픔을 직시한 곡은 모성을 주제로 한 작품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픈 모성은 이렇게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다. 노모의 용기로 해원한 아들은 성불하고, 지극한 모성에 감

---

25) もとよりも定めなき。世の理は目のあたり。老少不定の境なれば。若きを先立てて。つれなく残る老鶴の。眠りのうちなれや。夢とぞ思ふ親と子の。二十余りの年なみ仮初に立ち離れしをも。待遠に思ひしに。又いつの世に逢ふべき …… 亡き子と同じ道になしてたばせ給へと。人目も知らず伏しまろび。わが子を返させ給へやと。うつつなき有様を見るこそあはれなりけれ。(「藤戸」,『謡曲大観』4巻, pp. 2745-2746).

26) 「藤戸 概評」,『謡曲大観』4巻, p. 2739.

복한 모리쓰나는 죽은 어부의 추선공양은 물론 노모를 잘 보살펴 주었다는 후일담으로 곡은 끝이 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노에 등장하는 모든 어머니는 자식과 헤어지고 비탄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 대기근, 아동매매와 유괴, 돌연 출가 같은 중·근세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당대의 사료 중에는 노가 그리고 있는 애절한 모성과는 사뭇 다른 현실을 말해 주는 게 있다. 16세기 일본에서 활동했던 포루투칼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 부인들의 낙태는 일본에서는 지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는 가난을 이유로, 누구는 이미 많은 딸들에 질려서, 누구는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해야 한다고, 그도 저도 아니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 게다가 누구 하나 그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 아이를 낳은 후에도 죽이고, 혹은 낙태 유도를 위해 약초를 먹는다. 살아 있는 아이를 해안에 버리고 수로 안에 던져둔다. 사카이(堺) 시내를 걷다보면 이렇게 내버려진 아이들을 자주 목격한다. 어미가 태어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을 느낄 경우에는 아이를 해안가에 버리는데, 그 경우 바닷물이 밀려와 아이들을 완전히 죽인다. 아니면 방죽 안에 내다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개가 와서 먹어치운다.[27]

역사는 이렇게 피임이나 임신중절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여성들이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아이를 낳고 그 중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진 사실을 증언한다.[28]

---

27) ルイス フロイス, 『日本史』, 東洋文庫. 脇田晴子, 『日本中世女性史の研究』, 앞의 책, pp. 138-139에서 재인용.

28) 『어머니의 신화』, 앞의 책 참조 바람.

자신이 낳은 생명을 애착하는 '모성 자체는 하나의 진실일 것이다'.[29]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진실은 현실과 자기애 앞에 속절없이 흔들린다. 중세시대 발행된 인신매매문서에 나오는 '이 아이도 살리고 우리도 살기 위해'[30] 자식을 파는 부모의 예나, 영아 유기 사례는 루이스의 증언처럼 중·근세 일본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났다. 또 루이스의 기록에 비춰 보건데 현실의 어머니들은 그에 대해 큰 죄책감이나 슬픔 없이 일상을 살아나갔다[31]. 노에서 일군을 형성하는 모자이별 유형은 타인에 의한 유괴 못지않게 부모에 의해 아이들이 매매·유기되고 심지어 살해되던 시대상 위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존재이지만 거꾸로 자식의 생명을 파괴하고 학대하기도 한다. 일본 문예에서도 이러한 어머니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일례로 설화집『일본영이기(日本霊異記)』(下-16)에는 뭇 남성들과 문란하게 관계를 맺느라 자식들에게 젖을 주지 않고 방치한 죄로 지옥에 떨어진 여인이 젖이 붓고 고름이 나는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중세 설화집『사석집(沙石集)』(2권-8의 5화)에서는 아귀 지옥에 떨어진 어미가 굶주림 끝에 자식을 잡아먹겠다고 덤벼든다.

하지만 노에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그 고통을 영원히 짊어지고 나아가겠다는 어머니만 있다.

---

29) 같은 책, p. 35.

30)『鎌倉遺文古文書編』40-30991 所收「인신매매문서」中. 田口和夫, 1994, 앞의 논문, p. 146에서 재인용.

31) 와키타 하루코는 낙태나 영아 살해 후 그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에 대해 그리 슬퍼하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며 그것은 모자일체관에 의해 자식을 자신의 사유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脇田晴子,『日本中世女性史の研究』, p. 138.

> 사랑으로 헝클어진 이 마음. 여러 짐수레에 실어도 실어도 다 못 실어. 무거워도 끌어라 영차 영차 …… 부모 자식의 인연에 얽혀. 부모 자식의 인연에 얽혀. 어찌 해도 이 어둠 걷히질 않네. 구름 낀 흐린 달처럼 미미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식은 삼계(三界)의 족쇄런가. 소에 끌려가는 우차(牛車)처럼 어디까지 끌려가나. 어영차 영차 이 수레 끌고 가자. 끌고 가자.[32]

위 「햐쿠만」의 사장(詞章)에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쌓아올려도 끝이 없는 짐수레의 짐처럼 무겁고 버겁다고 호소한다. 또한 이 한 몸 근근이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 자식은 더욱 더 삶을 옥죄는 족쇄라고도 고백한다. 하물며 실종된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미의 신세는 소에 끌려가는 수레처럼 언제까지 운명에 끌려 다닐지 알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이 업보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을 팔고 양육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영아 살해와 아동 유기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던 시대, 모자이별을 다룬 노는 그러한 시대상 위에 창조되었다. 하지만 노에 등장하는 모든 어머니는 자식과 헤어진 슬픔에 몸부림치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모성에 대한 확신,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어머니는 운명적으로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모성을 그린 모든 노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

32) 乱れ心か恋草の。力車に七車。積むとも尽きじ 重くとも。輓けやえいさらえいさと。…… 親子の道にまとはりて。親子の道にまとはりて。猶この闇を晴れやらぬ。朧月の薄曇り。僅かに住める世に猶三界の首枷かや。牛の車のとことはにいづくをさして引かるらんえいさらえいさ。輓けや輓けやこの車 (「百万」, 『謡曲大観』4巻, pp. 2672-2673).

4. 길 위의 어머니-狂氣와 遊樂, 접신하는 모성

노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그저 망연한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특히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중에서도 어린 자식이 실종된 경우 그녀들은 예외 없이 슬픔 속에 몸을 일으켜 사라진 아이를 찾아 나선다. 작품으로는 「햐쿠만」, 「사쿠라가와」, 「미이데라」, 「가시와자키」, 「스미다가와」가 여기에 속한다.

> 여기 나온 모노구루이, 고향은 치쿠시(筑紫)의 휴가(日向).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헝클어진 마음으로 산 넘고 바다 건너 하코자키(箱崎), 물결 이는 스마(須磨) 바닷가, 스루가(駿河) 바다를 넘어 히타치(常陸)란 곳까지 떠내려 왔네. 부모 자식의 인연이 아니고서 아득한 이 여로를 어찌 지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또 사쿠라가와(桜川)라. 그 이름도 유명한 사쿠라가와, 사쿠라의 명소. 헤어진 내 자식의 이름도 사쿠라고(桜子). 사쿠라 꽃 만개한 시절, 그 이름도 그리운 사쿠라가와에 …… 33)

노의 어머니들은 행방불명된 어린 자식을 찾아 참으로 먼 길을 혼자 헤매 다닌다. 위 「사쿠라가와」의 어미는 고향인 규슈의 휴가를 출발해 후쿠오카(福岡)의 하코자키, 고베(神戸)의 스마, 시즈오카(静岡)를 거쳐 이바라키(茨城)의 사쿠라가와 강가까지 홀로 먼 길을 편력했다. 또 「가시와자키」에서는 니이가타(越後国) 가시와자키에서 나가노(信濃国)의 젠코지까지, 「미이데라」에서는 시즈오카

33) これに出でたる物狂の。故郷は筑紫日向の者。さも思ひ子を失ひて。思ひ乱るる心づくしの。海山越えて箱崎の。波立ち出でて須磨の浦。または駿河の海過ぎて。ひたちとかやまで下り来ぬ。げにや親子の道ならずは。遥けき旅をいかにせん。ここにまた名に流れたる桜川とて。面白き名所あり。別れし子の名も桜子なれば。形見をいひ折からといひ。名も懐かしき桜川に。(伊藤正義, 「桜川」, 『謡曲集』 中, 新潮社, 2015, p. 97).

(駿河国)에서 시가(近江国)까지, 「스미다가와」에서는 교토 기타시라가와(北白河)에서 지바 현(下総国)의 스미다가와(隅田川)까지의 여로가 펼쳐진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중·근세 시대 여인 혼자서 그렇게 먼 여행이 가능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연극적 허구일까? 아니면 당대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가? 이 시기 여성들의 여행 실태를 고찰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잇펜히지리에(一遍聖絵)』(13세기 말)나 『칠십일번 직인 우타아와세(七十一番職人歌合)』(15세기) 같은 회화자료,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1313년?) 같은 일기문학에서 보듯 당시 여성들의 여행 편력이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34]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 여성의 나 홀로 여행이 얼마나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와 관련해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喜彦)의 연구는 꽤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그는 『도와즈가타리』 등의 고찰을 통해, 중세 여성의 단독 여행이 가능한 배경에는 남성들과의 자유로운 섹스가 관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35] 이에 반해 호소카와 료이치(細川涼一) 등은 전국을 유랑하는 예능인의 대표격인 시라뵤시가 둘, 혹은 집단으로 여행을 했다는 사실, 『잇펜히지리에』에 혼자 여행하는 여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아미노가 말한 중세 여성의 나 홀로 여행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고, 거기에 성의 해방이 있었다는 추정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36] 이 주장대로라면 노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의 오랜 유랑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되

34) 이에 대해서는, 網野善彦, 「中世における女性の旅」, 『中世の非人と遊女』, 講談社学術文庫, 2007, pp. 250-263 ; 細川涼一, 「中世の旅する女性- 宗教, 芸能, 交易」, 岡野治子 編, 『女と男の時空-女と男の乱』(日本女性史再考3 中世), 藤原書店, 1996, pp. 341-378 참조.

35) 網野善彦, 「中世における女性の旅」, 앞의 책, pp. 255-258.

36) 細川涼一, 「中世の旅する女性- 宗教, 芸能, 交易」, 앞의 책, p. 367.

는 것이다.

노의 홀로 편력하는 여성들. 그것이 일본 여성사를 배경으로 한 것인지 혹은 연극적 설정에 불과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녀들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먼 길을 홀로 떠돌 때 그녀들의 신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그녀들이 무엇을 감수하고 길 위의 생활을 이어갔을지. 당대의 관객들이 아미노가 말한 성의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성적 유혹이 수반되었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을지 모른다.

물론 노에는 그 같은 성적 묘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 위태롭고 험난한 여정 위에서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망가진 어미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 중 「햐쿠만」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이 쳐다본다. 사람들이 쳐다본다. 햐쿠만의 모습, 그 길던 흑발(黑髮)은 쑥대머리, 낡은 에보시(烏帽子)는 어깨에 메고, 눈썹 화장은 시커멓게 번져, 제정신인가. 건들건들 떠도는 이 몸은 자식을 놓치고, 무심한 자식을 찾아 헤매니. 부모 자식의 인연은 베옷처럼 얇구나. 어깨끈은 묶어 아래로 늘어지고 옷단을 동여매 어깨에 걸치니. 헝클어진 마음에도 나무아미타불. 신심(信心)을 바치는 것도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라네.[37]

햐쿠만이 자식을 찾아 흘러 들어온 곳은 사가(嵯峨)의 세료지(清涼寺) 절이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노을이 내려앉

37) 見物なり見物成り。げに百万が姿は。もとより長き黒髪を。苅棘の如く乱して。古りたる烏帽子引きかづき。又眉根黒き乱れ墨。うつし心か村烏。憂かれと人は。添ひもせで。思はぬ人を尋ぬれば。親子の契り麻衣。肩を結んで裾にさげ。裾を結びて肩にかけ。筵片菅薦の。乱れ心ながら南無釈迦弥陀仏と。信心をいたすもわが子に逢はんためなり。(「百万」, 『謡曲大観』 4巻, pp. 2673-2674).

은 사원은 대염불회(大念佛會)를 찾은 참배객들로 붐빈다. 봄의 절정 속, 형형색색 화사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 아무렇게나 동여 맨 옷차림에 낡은 에보시를 늘어뜨리고, 쑥대머리에 검게 번진 눈 화장을 한 여인이 서 있다. 화사한 주위 풍경과 대비되는 그 모습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과 자식을 찾아 헤맨 여정의 고단함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또한 그것은 여인 스스로도 고백하듯 제정신이 아닌 광인의 모습이다. 노에서 헤어진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들은 모두 모노구루이(物狂), 즉 미치광이가 된다.

> 이렇게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아니, 정신을 놓은 것도 당연하니. 저 새들이나 짐승들도 부모 자식의 정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의 부모로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키운 자식의 행방을 알 길 없으니. 헝클어진 마음이 미치는구나.38)

노에 등장하는 광인, 이름하여 모노구루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귀신이나 신불에 빙의되거나 육친, 혹은 정인(情人)과의 이별이라는 사무친 정념에 의해 탄생한다. 그리고 후자의 모노구루이는 모두 이별한 정인을 찾아 유랑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 위의 모노구루이에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나게, '재미나게 한 번 미쳐 보라(面白う狂うて見せ候へ)'는 것이다. 강을 건네 달라는 우메와카마루(梅若丸)의 어머니를 향해 「스미다가와」의 뱃사공은 "교토 사람이든 광인이든 미쳐 보이지 않으면 배를 태워 주지 않

38) かやうに心あり顔なれども。われは物に狂ふよなう。いやわれながら理なり。あの鳥類や畜類だにも。親子のあはれは知るぞかし。ましてや人の親として。いとほしかなしと育てつる。子の行方をも白糸の。乱れ心や狂ふらん。(「三井寺」, 『謡曲大観』5巻, pp. 2995-2996).

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쿠라가와」에서는 "모노구루이는 재미있게 미친다고 들었는데 왜 미치지 않느냐"고 재촉한다. 또한 「햐쿠만」에서는 "사가의 대염불회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햐쿠만이라는 여자 모노구루이가 최고니 불러서 구경하자"며 선동하고, 여인금제의 미이데라에서 쫓겨나던 어미는 재미있게 미쳐 보이겠다며 절의 잡부들을 유혹한다. 이 말을 들은 잡부는 '주지스님이 뭐라 하든 말든' 여인을 강당 안으로 들인다. 주지의 꾸중보다 모노구루이가 '재미있게 미치는'것이 더 보고 싶은 것이다. 혹은 모노구루이가 미치는 것을 보면 주지의 노여움도 사라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재미있게 미쳐 보라는 사람들의 재촉에 여인들은 구경꾼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재미있게 미치는(面白う狂う)' 예능을 피로한다. 구경꾼들 앞에서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그녀들은 이미 여염집 여성이 아니다. 그것은 전국을 편력하며 예능을 팔았던 유녀(遊女), 구구쓰(傀儡), 시라뵤시(白拍子) 같은 여성 예능인[39]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제아미가 여성 모노구루이 노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는 「햐쿠만」의 주인공을 중세시대 실존했던 여성 예능인 햐쿠만으로 설정한 사실을 떠올려 보라. 대사원의 염불회나 축제의 마당에서 춤을 추는 주인공들의 예능인적 성격이 훨씬 명료해진다. 이렇게 자식을 찾아 유랑하는 어미들은 광대가 되어 길 위의 생활을 도모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모노구루이를 추는 어미들의 모습은 자식을 잃고 애끓어 하던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미이데라」에서 자식을 찾아 헤매던 여인은 비와호(琵琶湖) 호수에 비친 만월과 종소리에 얽힌 고시가를 읊으며 달빛 아래 춤을 춘다. 극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 관객은 고상한 학식을 겸비한 여성의 아름

39) 중·근세 여성 예능인의 여행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網野義彦, 細川涼一 앞의 논문 참조.

다운 춤과 노래에 이끌려 가을 달밤의 정취에 빠져드는 것이다. 또 「가시와자키」는 실종된 자식이 아니라 죽은 남편에 대한 추억에 빠지고, 「사쿠라가와」에서는 봄 분위기에 젖어 벚꽃을 칭송하는 노래를 연이어 부르며 춤을 춘다.

자식을 잃은 어미는 인간의 애별리고(愛別離苦) 중에서도 가장 비통한 모습일 것이다. 이 극적 드라마만큼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도 흔치 않다. 하지만 노가 보여주는 모자 이별과 재회의 드라마는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르러 이렇게 주인공이 피로하는 춤의 흥취를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응집된 춤이 아니라 봄의 화사한 정취(「사쿠라가와」), 명월과 종소리에 대한 시흥(「미이데라」), 죽은 남편에 대한 추억(「가시와자키」)을 표현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들 모노구루이 노에 나타난 모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봄의 화사한 정경, 가을밤의 정취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가 도구로 이용된 느낌마저 든다."거나[40], "헤어진 어머니의 비애와 유랑 끝에 찾아온 재회라는 극적인 주제를 가지면서도 극 자체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극적 흥미가 춤으로 수렴되고 만다"[41]는 식의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그런데 사실 소재와 취향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을 이 사태는 이 드라마의 생태적 속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종된 자식을 찾아 유랑하는 모성의 노는 전부 모노구루이 노에 속한다. 그리고 이 모노구루이 노를 확립시킨 제아미(世阿弥)는 그의 저서 『후시카덴(風姿花伝)』 제2장에서 모노구루이 노를 "노 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본위로 하는 노(此道の第一の面白尽くの芸

40) 脇田晴子, 『能楽からみた中世』, 2013, 앞의 책, p. 155.

41) 中村格, 「能と信仰ー子を尋ぬる物狂いの能」, 『室町能楽論考』, わんや書店, 1994, p. 104.

能)"라고 선언한다. 즉, 이들 모노구루이 노의 주안점은 관객의 흥취를 고조시킬 퍼포먼스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흥미로운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동안 자연히 어미의 비극성은 감소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노구루이 장면은 모성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데 불순한 역할만 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전체 드라마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이 모노구루이 장면이야말로 헤어진 자식과 어머니를 만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햐쿠만과 사쿠라고의 어미가 걸인과 다름없는 영락한 모습을 하고 대사원의 군중 속에서 춤을 추지 않았다면, 「가시와자키」와 「미이데라」의 여인이 여인금제의 불당에 밀고 들어와 춤을 추지 않았다면 모자재회의 기회는 없었다. '쑥대머리에 남성의 관모(冠帽)인 에보시를 걸치고, 시커멓게 번진 눈 화장'을 한 이형(異形)의 여인을, 미치광이가 되어(「가시와자키」), '헤어진 세월만큼 많이도 변한'(「사쿠라가와」) 어미를 먼 이국땅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의 모노구루이가 자식의 시선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노구루이의 퍼포먼스는 관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모자재회라는 극 전개상에 있어서도 클라이맥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미들이 길 위에서 선보인 〈모노구루이 춤(物狂の舞)〉의 성격에 대하여 일찍이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国男)가 지적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이른바 〈모노구루이 춤〉은 원래 제의 때 바쳐지던 신무(神舞)였는데, 가마쿠라 초기에 이중 일부를 떼어내 유흥으로 감상하기 시작했으며, 히에신사(日吉神社)의 무녀(巫女)들이 신사에 일이 없는 날이면 마을 집집을 찾아다니며 이 신무, 즉 모노구루이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42] 또 야나기다는 노

42) 柳田国男, 『女性と民間伝承』, 앞의 책, pp. 315-447.

의 주인공들이 광란의 표시로 조릿대 가지나 부채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둘은 본래 영탁(霊託)의 힘을 대표하는 것으로, 신사의 무녀들이 가구라(神楽)를 출 때 드는 다쿠사(手草)의 잔영임을 지적했다.[43] 야나기다의 이러한 고찰은 모노구루이 여인들의 무녀적 성격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종된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불의 영험이 필요하다. 노에서 자식을 잃은 여인들은 하나같이 세이료지, 젠코지, 미이데라 같이 신불의 영험이 충일한 신앙의 공간에 이르러 무아지경에 찬 광기의 춤을 춘다. 이는 접신(接神)의 의식무에 다름 아니며 이 의식을 거쳐야만 그녀들은 신불의 응답을, 즉 자식과의 재회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망아지경이 되어 모노구루이 춤을 추지만, 그녀들의 의식이 헤어진 자식을 찾겠다는 일념을 집요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햐쿠만」의 어미는 춤을 추는 동안에도 "햐쿠만의 춤을 보셔요. 아아 그리운 내 아들. 광인의 몸이지만 그저 내 자식을 만나려는 …… 불도에서 벗어난 애집일망정 자식을 만나게 해 주사이다."[44]라며 빌고 또 빈다. 또한 강물 위에 눈처럼 하얗게 내린 벚꽃을 건져 올리며 봄의 흥취에 빠져 노래하던 「사쿠라가와」의 어미는 "꽃도 눈도 물결도 다 건져 올렸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사쿠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쿠라고"[45]라며 종국에 가서 어미의 본성을 드러낸다.

또한 다른 곡에 비해서 모노구루이의 퍼포먼스가 긴 비중을 차

---

43) 柳田国男, 「烏帽子の力」, 『女性と民間伝承』, 같은 책, p. 396.

44) …… 百万が舞を観給へ。あらわが子。恋しや。狂人ながらも子にや逢ふと至心はなきを。…… 逆縁ながら。誓ひに逢はせて、たび給へ。(「百万」, 『謡曲大観』4巻, pp. 2679-2680).

45) …… 花も桜も。雪も浪も皆がらに。抄ひ集め持ちたれども。これは木々の花まことは。わが尋ぬる。桜子ぞ恋しきわが桜子ぞ恋しき。(「桜川」, 『謡曲大観』2巻, pp. 1238-1239).

지해 가을밤의 정취를 보여주기 위해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가 '도구로 이용된 느낌이 든다.'[46]고 평가받은 「미이데라」는, 그러나 자식과의 재회신도 다른 곡에 비해 매우 상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즉, 모노구루이 춤을 추는 여인에게 고향을 묻는 센미쓰(千満), 센미쓰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아들이라 주장하는 여인, 그에 대해 미친 소리라며 윽박지르는 미이데라의 승려, 이에 반발하는 여인, 여인을 때리며 쫓아내려는 승려, 이를 만류하며 인신매매상에게 팔려간 사연과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 헤맬 줄 몰랐다고 우는 아들, 아들을 찾은 기쁨과 부끄러운 자신의 처지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 미이데라 종소리의 신비한 공덕으로 모자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후일담까지. 곡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미이데라」는 '모자 이별과 고난 끝의 재회'라는 주제를 훌륭하게 완수해 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사나리 겐타로 박사가 "남편을 추모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다 돌연 모자재회의 기쁨으로 넘어가 주제의 순일성(純一性)을 결여했다."[47]고 평가한 「가시와자키」의 경우에도, 광인이 된 어미와 출가의 몸이 된 아들이 너무나 변해버린 서로를 응시하며 망연자실해 하는 마지막 부분은 모자지정의 애절함을 순일하게 드러내는 명장면으로, 사나리 박사가 지적한 결함을 훌륭하게 보상해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렇듯 모노구루이가 된 어머니들은 광기와 유락에 찬 길 위에서 헤어진 자식과 재회하고 구원을 받는다. 모자가 함께 출가해 후생성불의 인연을 쌓고 현생·후생 안락의 복록을 누리는 「사쿠라가와」의 모자. 고향으로 돌아가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린 「미이데라」의 모자. 화택(火宅)의 번뇌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46) 脇田晴子, 『能楽からみた中世』, 앞의 책, p. 155.
47) 佐成謙太郎, 「柏崎 概評」, 『謡曲大観』1巻, p. 650.

기쁨을 누린 「햐쿠만」.

한편, 길 위에 선 어미 중 유일하게 축복받지 못한 「스미다가와」의 어미는, "나무아미타불 시방극락세계 삼십육만억 동호동명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한 염불 기도로 죽은 아들에게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 준다. 비록 자신은 바람 부는 들판, 잡초 무성한 묘지 앞에 홀로 남겨졌으나 자식의 영혼만은 구원한 것이다.

5. 나가며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는 인류 문예사에서 가장 숭고하며 본원적인 사랑, 영원한 구원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왔다. 또 현실의 어머니들은 때로 비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파괴적이기도 한데, 문학은 이러한 어머니들을 자식을 잡아먹거나 학대하는 괴물로 그리기도 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중세극 노는 하나같이 이별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들을 그려낸다. 여기에는 자식을 두고 그 자식 때문에 애면글면하는 모든 모성은 숙명적으로 고통에 차고 슬플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노는 이렇게 슬프고 고통에 찬 어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써 자식과의 이별을 상정한 것이다.

한편, 이 극한의 슬픔은 어머니들을 광란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자식의 실종이라는 이별 방식에 직면한 어머니들은 예외 없이 자식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나선다. 광기에 찬 여정 위에서 어미는 유녀가 되고 무녀가 되어 결국 모자재회라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 기적은 신불의 영험을 불러낸 모노구루이의 주문(呪文)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성을 그린 노에 유독 구원의 드라마가 많이 보인다는 것은 노가 모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노가 인간의 모든 사랑과 애집을 고통과 허망함으로 인식하면서도 모성에 대해서만은 유독 긍정적인 구원의 판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伊藤正義, 『謡曲集』(新潮日本古典文学集成), 東京: 新潮社, 2015.
佐成謙太郎, 『謡曲大観』, 東京: 明治書院, 1930.
無住道暁 著 · 小島孝之 校注 · 訳, 『沙石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2), 東京: 小学館, 2008.

2. 논문 및 단행본

섀리 엘 서러 지음 · 박미경 옮김, 『어머니의 신화』, 까치, 1996, pp. 1-464.
網野善彦, 『中世の非人と遊女』, 東京: 講談社学術文庫, 2007, pp. 250-263.
大谷節子, 『世阿弥の宇宙』, 東京: 岩波書店, 2007, pp. 219-238.
野上豊一郎, 『能 研究と発見』, 東京: 岩波書店, 1930, pp. 94-108.
細川涼一, 「中世の旅する女性- 宗教, 芸能, 交易」, 岡野治子 編, 『女と男の時空-女と男の乱』(日本女性史再考3 中世), 東京: 藤原書店, 1996, pp. 341-378.
田口和夫, 「身売り説話と能-〈自然居士〉 〈桜川〉の場合」, 『国文学解釈と鑑賞』 59-11, 東京: 至文堂, 1994, pp. 146-152.
中村格, 『室町能楽論考』, 東京: わんや書店, 1994, pp. 104-151.
柳田国男, 『女性と民間伝承』, 岡書院, 1932(『定本柳田国男集』, 東京: 筑摩書房, 1979, pp. 315-447).
脇田晴子, 『日本中世女性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2, pp. 129-156.

_____, 『中世を生きる女たち』, 東京: 岩波新書, 2005, pp. 215-240.
_____, 『能楽からみた中世』,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13, pp. 129-166.

(**투고일**: 2019. 7. 30 **심사완료일**: 2019. 9. 20. **게재확정일**: 2019. 9. 23)

김난주
소 속: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전자우편: nanju21@hanmail.net

[Abstract]

Motherhood in Noh
- grief, madness, and salvation

Kim, Nan-ju

This paper analyzes the overall pattern and image of motherhood in the Japanese medieval play Noh(能).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about motherhood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Every mother of Noh is separated from her child and struggles with the sorrow of parting. The core of Noh's motherhood is a grieving mother. And that is made out of a belief in motherhood that all mothers love their children. When a young child is missing, Noh's mothers wander around to find their child in a frenzy of madness and make a miracle of reunion in the end. As for these Monogurui-Noh, which deal with separation and reunion of mother and son, Many critics say that the Monogurui performance, which focused on interest, has reduced the dramatic tension. I reconsidered this assessment, and argued that this Monogurui performance provided a decisive opportunity for the reunion of the mother and son in structure. And also argued that there was a consistent desire to find a chil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dancing women. Through these studies, we confirmed that Noh which perceives human love and affection as pain and futility, wants to show a fantasy of redemption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motherhood.

Key words: Noh, Yokyoku, Motherhood, Monogurui, Kashiwazaki, Sakuragawa, Sumidagawa, Settai, Daibutsukuyo, Huzito, Hyakuman, Miidera